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임파워먼트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에서 임파워먼트 실천은 가능한가?*

김인숙** · 우국희***

최근 서구에서 성공적 인기를 얻은 임파워먼트 개념이 우리에게도 소개되면서 사회복지실천의 주된 관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사회복지의 실천 현장 도처에서 이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화려한 수사와 만병통치약처럼 실천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부상은 우리에게 있어 임파워먼트 실천이 어떤 것이며 실천 현장에 어떻게, 얼마나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과연 임파워먼트란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구체적 경험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파악한 것이다. 연구결과 현장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임파워먼트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하는 실천이 임파워먼트에 근거한 접근이라고 인정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다. 즉, 자기 주체화 과정을 임파워먼트로 인식하면서 관계에서의 동등성과 상호교류를 강조함은

* 이 논문은 2001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바쁘신 외증에도 이 연구를 위해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물론 클라이언트와의 동등한 관계를 지향하면서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인정하고 일상의 작은 것을 중시하는 장기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기준의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전문성”에 도전하여 전문성을 재해석하여 실천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임파워먼트 실천은 사회복지사의 창조성과 에너지, 무한정한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가 요구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전파력과 확산성으로 인해 더 많은 대상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접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문제 제기

서구에서 임파워먼트 실천은 새롭고도 성공적인 아이디어로 불릴 만큼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은 물론 사회복지 실천가의 관심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Lee, 2001:5).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중반 이후 이에 대한 소개(오혜경, 1999; 양옥경·김미옥, 1999)와 비판(이혁구, 2000; 박시종, 2001), 현상(강철희·윤민화, 2000)과 적용(박미은, 1996; 신영화, 1999; 이윤화·권중돈, 1999; 황성철, 2001)의 측면에서 임파워먼트가 서서히 언급되고 있다. 이렇듯,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나라가 공통적으로 임파워먼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회복지 초창기부터 끊임 없이 논쟁을 불러일으켜 온 “구조와 기능”(*cause and function*)이라는 사회복지 역할의 이중적 초점을 통합해주는 관점과 전략을 시사해 주고, 클라이언트의 자생적인 힘을 키워 스스로 자기 주체화됨으로써 사회정의와 힘의 균형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이념적 매력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랫동안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은 “동시적 이중 초점(dual simultaneous focus)”으로 정교화되어 있다. 이중초점은 개인과 환경에 대한 통합적 개념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회생자를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만병통치라는 순진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원조기술을 임상적 차원은 물론 정치적 차원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지향한다(Lee, 2001).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지향과 관점으로 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에 끌어들일 수 있는 실천이론이나 접근은 매우 부족했었고, 이에 대한 현장의 욕구는 점차 더 커져만 갔다. 임파워먼트 개념과 접근은 바로 이러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다는 기대를 받으면서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임파워먼트 실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파워먼트 실천이야말로 사회복지실천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주장(Beck, 1983; Lee, 2001)에서부터 실현 가능성이 적은 환상에 불과하며(Braye & Preston-Shoot, 1995), 자유주의적 통치이념에 다름 아니라는(이혁구, 2000) 주장에 이르기까지 그 간격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간격의 중간 지점에는 임파워먼트가 기존의 실천 패러다임에 대한 새롭고도 도전적인 개념임을 인정하되 이것이 유일한 접근이거나 만병통치 약은 아니며 한계를 가진 것 또한 분명하다(Perkins & Zimmerman, 1995; Rondeau, 2000)는 입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 입장은 임파워먼트 실천 접근의 혁신성과 가능성 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한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대안에 관심을 가진다. 이들에 의 하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임파워먼트라는 말이 도처에서 발견되지만 그 구체성 과 체계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실천가들의 성공적인 임파워먼트 실천 경험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했고 여기서 나온 지식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틀을 발전시키지 못한 채 개입을 시도했다는 것이다(Gutierrez, DeLois, & GlenMaye, 1995; Perkins & Zimmerman, 1995; Rondeau, 2000). 그리고 임파워먼트 실천이 표방하는 이론적 인파론과 실천상의 괴리, 즉 구조와 기능이라는 사회복지실천의 “이중 초점”을 실질 적으로 통합화해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의 지식체계에 다양한 사회과학의 이론 을 수용하여 재구성하고 이를 임파워먼트 실천과 연계해야 한다는 대안을 주장한다 (박시종, 2001).

본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전자의 대안, 즉 실천 경험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은 현장에 기초한 경험적, 귀납적 이론이나 개념의 개발에는 등한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서구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장에 불과했다는 현장의 비판적 목소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적절히 변호하지 못했다. 임파워먼트 개념 또한 이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임파워먼트 접근이 조직적 차원, 전문가 차원, 클라이언트 차원 등 여러 각도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요청되는지, 얼마나 현실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이 과연 임파워먼트 실천인지, 이 개념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 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

하고 있는 임파워먼트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룬 주된 연구 문제는 사회복지사는 과연 임파워먼트의 핵심적 속성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로서, 좀더 구체적으로는 파워, 클라이언트를 보는 관점, 개인적 문제의 정치사회적 맥락,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는 연구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경험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임파워먼트의 현 논의를 개념적 수준에서 경험적 수준으로 확장시키고,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 현실로 끌어내리는 계기를 제공하는 의의를 가질 것이다.

2. 문헌 고찰

1) 임파워먼트 개념의 핵심적 특성

사회복지실천에서 임파워먼트의 개념은 명료하지 않고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다. 임파워먼트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임파워먼트를 과정으로, 결과로, 목적으로, 개입방법으로, 이론과 실천으로, 패러다임으로, 철학으로 혹은 이들 중의 부분적 집합으로 보는 등 매우 다양하다. 아울러 임파워먼트 개념은 인구와 맥락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인구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이 없다 (Zimmerman, 1995). 이는 곧 임파워먼트의 형태는 개입수준과 대상, 맥락, 시간에 따라 달라서 모든 대상과 맥락 및 개입수준을 망라하는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임파워먼트를 과정중심으로 보았을 경우, 개인수준에서 임파워먼트 과정이란 지역사회조직에의 참여를, 조직수준에서는 집단적 의사 결정과 리더십의 공유를, 지역사회수준에서는 정부와 다른 지역사회 지원에 접근하는 집단적 행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임파워먼트를 결과중심으로 보았을 경우, 개인적 수준에서는 특정 상황에 맞는 지각된 통제력과 자원동원기술의 획득을, 조직적 수준에서는 조직의 관계망 개발과 조직성장 및 정책수준을, 지역사회수준에서는 다원주의, 조직간 제휴, 접근가능한 지역사회 지원을 포함한다 (Perkins & Zimmerman, 1995). 그리고 이들조차도 맥락의 상이함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임파워먼트의 개념과 기준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어 혼란은 더욱더 가중된다.

이러한 임파워먼트 개념상의 혼란은 한편으로는 개방성, 풍부성, 유연성을 가졌다 는 찬사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알맹이가 없어 폐기처분 해야할 것이라는 혹평을 동시에 받고 있다(Rondeau, 2000). Gutierrez, DeLois, & GlenMaye(1995)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임파워먼트 개념상에 혼란이 있는 이유로 임파워먼트 실천을 시도하는 조직과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그 실천모델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임파워먼트 개념은 Turner가 말한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과 모델에 대한 실증주의적 기준(8가지)을 적용하면 실천이론도 실천모델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파워먼트 개념은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실천모델로서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론과 모델에 대한 다른 견해 즉, 포스트모던적 견해를 적용하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론과 모델은 구분되기 어려우며 이론 안에 관점과 실증주의식의 '이론들' 그리고 모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서진환외, 2001:78~81). 임파워먼트가 실천이론도 실천모델도 아니라는 비판을 수용하면서 임파워먼트 본래의 의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임파워먼트를 접근(approach)으로 보는 것이다. 접근이란 실천에 대한 관점, 즉 실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접근은 사용자의 스타일, 판단, 자아의 활동에 동화되는 융통성있고 개방된 체계이다. 접근은 전문가의 목적, 가치, 이념, 개념, 지식, 방법에 근거하며 그 이해 범위에 따라 선택된다(Lee, 2001:31~32).

이처럼 임파워먼트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의의 양상은 실로 다양하다. 임파워먼트 개념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에서부터 상황 및 시간적 맥락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실천 개념으로 갖는 한계, 마치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처럼 남용 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틀로서 충분한 가치와 근거가 있는 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기존의 사회복지실천 개념과는 다른 핵심적 특성들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임파워먼트 개념이 갖는 핵심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6가지로 얘기될 수 있다.

첫째, 임파워먼트는 파워(power)의 사용에 관한 주제를 사회복지실천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즉, 클라이언트의 파워획득을 사회복지실천의 목표로 설정함은 물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 파워의 관점에서 바라다봄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파워를 동원하고 파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파워를

실천의 전면에 부각시킨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구와 박탈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적 측면을 가진다(Dunst et al., 1994). 다시 말해, 클라이언트가 경험하는 문제는 파워 없음에서 오며,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치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파워”를 획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클라이언트에게 파워를 부여한다는 것이나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가 힘의 관계라는 인식은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워라는 주제가 사회복지실천의 전면으로 부각된 것은 임파워먼트라는 말 자체가 가진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와 연합되면서부터이다(Rondeau, 2000).

임파워먼트 접근에서 파워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사고·느낌·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가족·조직·지역사회·사회에서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Gutierrez, DeLois, & GlenMaye, 1995:535).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파워를 획득하게 하고 파워를 부여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 자신의 환경에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선택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Cohen, 1998). 그러나 파워가 반드시 실질적인 파워를 갖거나 실질적 통제를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들도 임파워된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며, 실질적 파워를 갖지 못하고서도 임파워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Zimmerman, 1995).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파워획득을 가로막는 것에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다. 간접적인 것은 내면화된 부정적 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바라보는 것”이고, 직접적인 것은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제도이다(Lee, 2001:32에서 채연용).

둘째, 클라이언트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파워를 획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긍정적 관점 지향은 클라이언트를 자원으로 보게 하며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들을 자원으로 바라보도록 돕는다.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하는 긍정적 시각 또한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Germain & Gitterman(1980)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의료모델에 근거한 병리중심의 시각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그동안의 강점에 대한 과소평가에 눈을 돌리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McQuaide & Ehrenreich

는 사회복지실천에서 강점이란 단순히 약점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개념이고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특성이 아니라 환경에도 적용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래서 한 상황에서 강점으로 표현된 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강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장인협·우국희, 2001:109~110에서 재인용). 강점을 중심으로 클라이언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사회복지사 역할의 방향을 가능케 하는 자, 즉 경험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강점과 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돋는 것에 두도록 한다. 아울러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있어 클라이언트를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방적이고 지시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줄일 수 있다.

셋째,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파워의 문제로 재구조화하고 비위계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임파워먼트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파워먼트를 기법이나 도구가 아닌 관계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다(Rose, 2000).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모든 형태의 억압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관계에 있다(Rose, 2000). 임파워먼트 실천은 관계를 파워라는 프리즘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에 있어 비위계성, 상호성, 협력, 동의를 지향한다(Cohen, 1998). Bricker-Jenkins(1991)에 의하면 “실천가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은 누군가를 위해 무슨 일을 해준다는 사고에 저항하고 그들이 돋는 사람의 선택을 지지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한다’는 생각을 자제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에 대한 도전이며, 관습적인 실천을 포기하는 것이며,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전문적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에 부여된 공식적 파워를 포기하는 것이다”(Cohen, 1998).¹⁾ 임파워먼트 실천의 목적이 실천가와 클라이언트간에 의미가 회복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임파워먼트에 있어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이러한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조와 그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Rose, 2000).

넷째, 개인적 문제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관여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실천가는 사물이 어떻게 그러한지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

1) Cohen(1998)에 의하면, 실천가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파트너십, 멘토십, 전체주의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파트너십은 공평한 파워 분배, 파워의 공유를 의미하며, 멘토십은 파워의 불균형, 불평등에 상호 동의한 관계를, 그리고 전체주의는 실천가의 권위가 처음부터 부여된 관계를 말한다.

호기심은 개인적이고 관계적 수준만이 아닌 정치사회적 이해와 행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파워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교묘하게 희생자를 비난 (*blaming the victim*) 하는 대신에 클라이언트에 내면화된 환경의 영향을 포착하고 (Perkins & Zimmerman, 1995) 이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여기서 변화란 구조적 불평등과 억압이 개인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비판적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식과 지식 자체가 바로 파워이다(Lee, 2001:34). 따라서, 진정한 임파워먼트는 정치적 요소와 비판적 자각, 참여적 행동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Zimmerman, 1995). 이런 점에서 임파워먼트 실천은 “구조와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적 사회복지실천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임파워먼트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상적인 모습은 “임상적 행동가”, “임상적 지역사회실천가”, “임상적 사회정의 실천가”이다(Lee, 2001:6).

다섯째, 뚜렷한 종결 지점이 없는 과정이 곧 목표가 되는 ‘점진적 과정’(*incremental process*)이라는 점이다. 임파워먼트 실천은 시작에서 종결에 이르는 단계가 없이 (Zimmerman, 1995) 순환적이고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진적 과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Lee, 2001:5~7). 정신질환자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특정 시기에 임파워된 상태에 있거나 임파워된 특성을 보이다가 다시 임파워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종결지점을 정하기 어려우며 과정 그 자체가 실천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은 임파워먼트 실천 접근이 느리고 장기간 걸쳐 이루어지는 실천의 모습을 떠는 요인인기도 하다.

여섯째, 일상생활의 대화, 일상의 작은 것을 중시하는 대화적 실천이라는 점이다. 임파워먼트 실천은 클라이언트가 지속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산출해 낼 수 있도록 지지하는 하나의 대화 과정이다(Cohen, 1998).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치료적 대화와는 다르고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집단적 이야기에 접근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임파워먼트의 강력한 자원이다. 임파워먼트에 대해 글을 쓴 많은 학자들은 프레이리의 대화과정(*dialogical process*)이 임파워먼트 실천의 기초 개념이라고 보았다. 프레이리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적 만남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이 대화과정에서 각자는 자신의 권리를 자기의 말로 이야기하고 세계를 자신의 말로 이름붙인다”(Lee, 2001:36~37 재인용).

2) 임파워먼트 접근이 사회복지실천에 가지는 의미

임파워먼트, 즉 클라이언트에게 힘을 부여함으로써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에서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에서 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임파워먼트가 인기있는 개념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임파워먼트라는 말 자체가 가진 개혁적 이미지가 사회복지서비스 상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이다(Rondeau, 2000). 솔직히 사회복지실천에서 임파워먼트 개념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인기와 성공이라는 이면에는 많은 위험 또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Saleebey, 1996; Lupton & Sheppard, 1999), 클라이언트의 힘이 사회복지 실천가로부터 주어진다라는 모순, 내부자들간의 상호 반목으로 내몰 여지, 사회구조에 대한 변화를 현실화하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변화의 책임소재가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한계(서진환 외, 2001:447~448), '자원과 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파워먼트를 위한 자기결정은 공허한 심리적 진통제에 그칠 수 있는' 점(박시종, 2001:109), 어떤 경우에 적용해도 다 좋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라는 오해(Rondeau, 2000) 등이 바로 이런 위험들이다. 국내에서는 푸코의 권력이론에 입각해 임파워먼트를 "자유주의 통치의 양식"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적 견해(이혁구, 2000)와, 임파워먼트의 외양과는 달리 실제 실천전략에서 행위와 구조의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박시종, 2001)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비판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에서 임파워먼트 접근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이들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임파워먼트"로 개념화하고 명확히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임파워먼트 실천에서 실천의 궁극적 목적은 클라이언트에게 파워를 부여하여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의 향상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중립적인 개념에 두었던 이전의 입장과 비교될 수 있다. 임파워먼트 실천은 사회복지 실천가가 하는 어떤 접근이든지간에 그 일차적 목적은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에 더 많은 파워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함을 명확히 한다. 둘째, 사회복지실천의 역할을 '구조와 기능'의 분리가 아닌 이 양자를 통합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실천은 오랜동안 '구조와 기능'

의 통합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에 관심을 두어왔다. 임파워먼트 실천은 적어도 이 둘을 한데로 묶어낼 수 있는 인식론적,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실천과정상에 과연 이 양자의 역할이 얼마나 통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는 사회복지 실천가의 실제의 실천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임파워먼트 경험들을 파악하고, 함께 모아 논쟁해야 하며, 가장 성공적인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가능하다(Rondeau, 2000). 뒷째, 사회복지실천의 정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실천은 그동안 중립성과 물정치성에 대한 신념을 견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김인숙, 2001:119~121). 그 결과 사회복지실천은 기술과 기법에 의한 전문직으로 인식되었고 “가치기반의 전문직 (value-based profession)”(Sachs & Newdom, 1999)으로 인식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임파워먼트 개념 이해의 핵심은 그것을 기법이나 도구가 아닌 관계 혹은 가치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다(Rose, 2000). 넷째, 기존의 사회복지실천에서 간과되었던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실천의 과정 자체를 목표로 본다든지, 실천 과정을 순환적으로 보면서 도식화되지 않은 느린 실천을 긍정한다든가, 생활 속의 대화를 통해 작은 진전을 중요한 초점으로 본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연구와 같이 실제 실천과정에서 이러한 임파워먼트의 특징들이 어떻게 경험되고 발전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더욱 집착되어야 한다.

3.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자 선정방법과 기준

조사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비획률표집방법 중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과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 혹은 *chain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의도적 표집은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표집방법으로서 특정 현상에 대한 서술과 해석, 통찰과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Patton, 1990; 유태균, 2001). 의도적 표집방법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연

구주제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임파워먼트를 이해하고 있고 또 스스로도 그러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사전에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경우(4명)를 먼저 선정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경로로 연구자들과 접촉해 왔으며 평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실천방식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그들이 어느 정도 임파워먼트의 속성들을 실천에서 의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들에게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방법 외에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직접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연구자들은 임파워먼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를 추천해 줄 것을 여러 사회복지기관에 전화로 요청하였지만 사회복지사를 추천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재량권이 넓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현장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지역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관들에 추천을 요청한 결과 임파워먼트를 이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명을 추천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추천받은 사회복지사로부터 또 다른 사회복지사를 추천받는 체인 방식으로 총 3명의 사회복지사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었다. Lincoln & Guba에 의하면, 질적 연구에서 적절한 표본 수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표본에서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표집을 종료한다(Patton, 199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인터뷰 분석결과에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고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을 보고는 자료수집을 중단하였다. 물론 이는 임파워먼트를 이해하고 있는 실천가들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실천현장의 현실이라는 한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본 연구자들이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시 해당 사회복지사가 임파워먼트 실천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파워먼트 실천모델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임파워먼트의 개념이나 목표 자체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파워먼트 실천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중요하게 고려된 유일한 기준은 사회복지사들이 주관적으로 임파워먼트 혹은 임파워먼트의 일부 핵심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여기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사회복지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은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대상자들로부터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파워먼트 개념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고 다양하게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조사방법 :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방법은 질적 조사방법이다. 질적 조사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파워먼트가 우리 사회에 적절한 개입, 이념, 패러다임으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험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임파워먼트의 개념적 논의 수준을 경험적 수준으로 확장,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 임파워먼트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관점에서가 아닌 경험자의 관점에서 임파워먼트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양적인 접근보다 질적인 접근이 훨씬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적인 연구방법은 크게 개별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포커스 그룹(*focus group*)으로 구분된다. 먼저, 개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대상자별로 1회 2시간 정도 수행되었는데,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개괄적인 면접 지침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였다. 이는 면접이 두 연구자에 의해 상이하게 수행되는 관계로 이후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었으며, 또 사회복지사들에게 인터뷰를 수회에 걸쳐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제한된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연구자들은 먼저 4가지 관심 영역을 설정한 후 각각의 영역에 초점을 맞춘 세부적인 면접지침을 가지고 심층면접에 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면접지침의 영역은 파워에 대한 이해, 클라이언트를 보는 관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실천과정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들 4개 영역을 다루는 면접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사가 임파워먼트 개념을 이해하게 된 배경, 강점 지향에 대한 인식,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대한 믿음,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대한 전제, 바람직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특성,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실천에서의 사회,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인식, 실천의 시간 차원에 대한 인식, 실천의 최종 목

적과 목표에 대한 인식 등이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개별 인터뷰 대상자 중 6명을 대상으로 2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이는 개별 심층 인터뷰를 완료한 후 이루어졌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개별 인터뷰 시 사용한 동일한 내용의 지침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연구자들은 가능한 핵심적 질문을 던질 뿐 잣은 개입을 자제하면서 집단성원들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포커스 그룹 방법의 필요성은 질적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즉, 1회에 한정된 개별 인터뷰가 두 명의 연구자에 의해 별도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신뢰도와 연구의 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면접 지침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려고 노력했지만 질적 조사의 특성상 질문 방식이나 대화를 이끌어 가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명의 관찰자가 동일 대상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도에서 포커스 그룹이 행해졌다. 포커스 그룹은 임파워먼트 개념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의 차이보다는 공통성을 보다 많이 확인시켜 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3) 자료분석과 신뢰성 : 지속적 비교방법과 삼각측정

자료는 현장에서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기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인터뷰된 내용은 즉시 측어적으로 풀어쓴 뒤 두 연구자가 각자 7명의 인터뷰 자료와 포커스 그룹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trauss & Corbin이 제시한 질문하기 방법과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지속적 비교방법이란 근거이론에 기반한 질적 자료의 코딩방법으로서, 코딩 과정에서 새로운 범주나 주제 등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 자료의 처음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한 코딩 작업이 새로운 범주나 주제에 맞게 코딩되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방법이다(유태균, 2001). 이 방법에 근거해 연구자들은 먼저 출력된 자료들을 한줄 한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면서 떠오르는 잠정적 개념들을 가장자리에 메모해 두었다. 자료 전체를 한 번 정독하는 동안 초기에 이름 붙여진 개념들이 이후에 나온 개념들과 지속적으로 비교되어 수정되거나 통합되기도 하였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출현하여 이에 덧붙여지기도 하였다. 전체를 통

독한 뒤에 새롭게 다시 읽으면서 개념들을 수정, 축소하면서 주제범주를 만들어 나갔는데, 이 과정은 전체 3번 이상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발견된 주제의 일관성이 높아졌다. 처음에는 20여 개의 주제가 출현하였으나 자료를 3번 이상 검토하는 과정에서 5개의 범주와 각 범주별로 여러 개의 하위범주로 축소, 정리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조사결과 및 해석의 일관성과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측정 (triangulation)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 점, 둘 이상의 관찰자가 같은 대상을 관찰하고, 같은 자료를 동시에 해석한 것이 그것이다. Patton(1990)에 의하면, 시간이 경과해도 동일한 것에 대해 말한 내용이 일관될 때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대상자들에게 시간차를 두고 면접을 수행함으로써 (개별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4.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배경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배경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근무하는 세팅은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운동센터, 병원, 소규모 장기시설로 크게 구분되었다. 지역사회복지관에 소속된 대상자는 총 3명으로 2명은 재가복지 영역에서, 1명은 주간보호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빈민지역에서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지역사회조직운동을 주로 하는 기관에 속해 있었으며, 1명은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지역복지로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병원 내 의료사회사업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였고 다른 1명은 약물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장기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이 5명이었으며, 2년 8개월이 1명, 3년이 1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은 여성 6명, 남성 1명이었고, 연령대는 20대 후반이 1명, 나머지 6명은 모두 30대 초, 중반이었다. 학력은 대학원 졸업이 4명, 학부 졸업이 3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임파워먼트 개념을 접하고 실천에 접목하려고 노력한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다. 하나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서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과상적으로 접하긴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직접적인 실천경험을 통해 경험적으
로 인식한 경우이다(5명). 또 다른 경우는 공식적 교육이 아닌 비공식적 교육, 예를
들어 현장에서의 자체 세미나 등을 통해 임파워먼트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실천
에 적용하려 한 경우이다(2명). 이처럼 본 연구의 대상자들 모두는 공식적이건 비공
식적이건 임파워먼트에 대한 교육을 접하였으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실천
경험에 비추어 임파워먼트를 재해석하고 확대,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2)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임파워먼트는 다음과 같은 하위 개념들의 조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들 개념들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지
만, 차원이나 적용 등의 면에서는 조사대상자들만의 독특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다.

(1) 힘(파워) : 자신감과 주체성

임파워먼트에서 핵심은 파워라고 할 수 있다. 파워는 학자나 실천가들마다 상이하
게 이해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실천가들은 공통적으로 파워를 자신감, 자치
성, 주체성, 독립성 등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
해 나가는 주체성”, “개인이 스스로 인정받고, 그 부분에 대해 자치성을 확보하고 스
스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성”,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파워라고 보았
다. 한 복지사는 자신감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에 따르면 자신감은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 똑같은 처지
의 혹은 자기보다 어려운 상황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저 사람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구나하고 느끼는 것,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
끼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언급되는 파워는 다른 사
람이나 환경에 무언가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차원의 권위나 권력의 개념이 아니라 자
신의 삶에서 주체가 되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다소 소극적인 차원의 것임
을 알 수 있다.

파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볼 때, 자신의 삶에서 주체적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곧 임파워먼트라는 데는 다른 연구들과 인식을 같이 하나, 인식의 수준에 있어서는 사회 정치적, 구조적인 차원보다는 개인적, 관계적인 차원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의 지배와 갈등, 역압과 종속과 같은 정치적 개념에는 인식 수준이 크게 높지 않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클라이언트들의 임파워먼트를 격려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는 이중적인잣대를 갖고 있다는 데서도 입증된다. 그 배경에는 자기가 소속된 기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사람들이 임파워되고 나서 기관에 대한 어떤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난감해져요… 기관에 불이익을 주다보면 제 위치도 참 곤란하게 되거든요. 기관에 대항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제가 어떨 때는 이 기관을 떠나야 진정한 임파워먼트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거나 심지어는 “기관과의 불협화음을 좀 줄여보려고 실제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클라이언트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또 다른 한편 사회복지사들 자신의 제한된 경험에서 나온 편견의 산물이기도 했다. 즉 “철거지역에서 일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개인적 힘들이 집단화 됐을 때 왜곡된 힘으로 발휘될 수도 있다는 거. 하나의 파워가 형성되었을 때 오히려 왜곡된 파워, 즉 권리 싸움으로 나타나기 쉽고 그걸로 인해 주위의 환경이나 공동체 자체가 더 파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듯, 조사대상자들의 파워에 대한 인식은 구조나 제도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에 대항하는 힘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소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2) 관계 : 동등성과 상호교류성

임파워먼트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으로 확인된 것은 관계성이다. 임파워먼트는 개인 내적인, 개인 내부에서 자생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가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 이는 다시 말해, 개인이 그 자신의 삶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나, 주체성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호지지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의미한다. “임파워먼트의 경우 목표 자체를 관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에서도 관계성은 매우 중

요한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임파워먼트에서 말하는 관계성은 개념이나 실제 적용 면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과는 차별된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지지망, 지지집단, 조직이나 단체 등에의 소속감과 그로부터 나오는 지지를 받을 때 임파워된다고 보았다. “조직에 소속되어 있어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그룹이 있다고 느낄 때 파워를 갖게 된다”거나, “자기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들이 형성되어 그런 것들로부터 파워를 얻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자조집단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한 사회복지사의 말처럼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것”, 즉 네트워킹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임파워먼트 접근에서 관계성은 개인이 주체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이때 관계는 수직적, 권위적-종속적 관계가 아닌 상호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관계 개념과 차이가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임파워먼트를 가능케하는 진정한 관계는 비슷한 처지의 동료 관계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클라이언트들이 주체성, 독립성을 획득하는 것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다른 노숙자들을 선도하는 노숙자 희망봉사단의 형태”, “전문가가 직접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보다는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를 임파워시켜 주는” 형태로 임파워먼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등한 관계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은 사회복지실천가와 클라이언트간의 대등한 관계는 원천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순간부터 클라이언트와 동등한 관계가 절대 될 수 없어요. 클라이언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관계가 되기가 힘들어요”라든가, “대상자들은 전문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만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파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결국에는 파워의 중심이 사회복지사 한테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의존적으로 만든다”라는 말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동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클라이언트들은 동등하게 생각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은 사회복지사에 대해 “높은 사람, 무언가 줄 수 있는 사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사람”, “힘이 있

는 사람”,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 “동등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진정한 동반자관계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임파워먼트의 기본 전제가 동등한 관계에 있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는 결코 동등하지 않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도 조사대상자들은 임파워먼트 접근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관계 자체의 역동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노력과 진실된 접근이 있을 때 관계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관계라는 것 자체가 역동적이어서 저도 깨지고 그 사람도 깨져가면서 서로 길들여지는 거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신뢰들이 쌓여가고 그러면서 서로 수정되고… 점차 완전한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동등한 관계로의 진전을 위한 노력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보다는 사회복지사 자신의 노력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동등한 동반자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를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전문가로서 인정해 주는 태도가 중요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이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클라이언트로부터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자기가 많이 알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하며, 나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분들은 살아 온 경력이 많기 때문에 한 마디의 말도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

결국, 동등한 관계는 사회복지사가 모든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나름의 잠재력과 강점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 조사대상자들은 모든 사람은 강점이 있다는 데 동의했으며, 심지어 누가 보더라도 무력한 상황에 빠진, 스스로도 무기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강점이 있다고 보았다. 어떤 잠재력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클라이언트에게서도 자기의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잠재력이라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클라이언트를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게 하는 핵심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결국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상호간에 원칙을 지켜주는” 과정에서 동등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는 긍정적, 낙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

(3) 과정 : 순환성과 확산성

조사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임파워먼트를 결과 혹은 완결된 형태로 보기보다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현재 임파워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임파워먼트는 과정이다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 속에는 변증법적 발전을 뜻하는 순환성과 점차 그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확산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순환성은 임파워먼트가 정적 방향으로 계속 발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파워된 상태와 무력한 상태의 지속적인 순환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간다는 인식과 연관된다. “임파워먼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사회복지사가) 믿었던 측면에서 실망하는 부분도 나온다”고 인식했다. 임파워먼트는 “병에 비유하면, 모든 질병은 재발하기 마련이듯이, 임파워먼트 또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며,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갔다 싶으면 또 흘어지는” 반복적인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되므로 사회복지사가 성급한 태도를 갖고 접근하면 실패하기 쉬운 접근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확산성은 임파워먼트가 완결된,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한 번 달성되면 그 자체의 속성상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임을 의미한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신감, 주체성의 확립은 그 자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유사한 환경의 다른 사람들을 임파워시키고”, “무엇인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고, “개개인들이 변화되어 마을 전체가 행복한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체계를 넘나드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확산성의 개념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임파워먼트 접근을 시도할 때 그 목표를 거창하고 장대한 것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바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현실적이면서 작은 일에서 시작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일단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우선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지 크게 할 생각은 없어요”라는 말에서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 “작은 변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작은 물꼬를 터서 큰 물줄기를 끌어들이듯이 임파워먼트 또한 작은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했다. 이러한 확산성의 개념은 개인적 차원의 임파워먼트가 집단, 조직의 임파워먼트로 확대되고, 조직의 임파워먼트는 전체 사회의 임파워먼트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다른 관계로 확산되지 않는 임파워먼트는 진정한 임파워먼트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확산성의 개념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 조직, 제도적 차원이 연속적인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는 인식과는 다르다. 개인에서부터 사회 제도에 이르는 사회체계는 각각이 하나의 전체로서 다른 체계를 상호 포함한다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때 이것이 보다 잘 설명된다. 개인이 변화되면 가족이, 가족이 변화되면 지역사회가 변화된다는 식의 일직선적인 논리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아닌데, 조사대상자들은 각각의 체계를 분리된 객체로 이해하기보다는 각 체계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체인, 즉 공동운명체적 개념을 갖고 있었다. “개인이 임파워먼트 되더라도 그 사람이 돌아가는 가족이 임파워먼트 되어 있지 않으면 벌써 거기서 치이는 거예요 … 또 아파트 단지 하나만 하더라도 그 주위의 지역사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맞물려 들어가니까, 개인을 보더라도, 전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돼요.” 결국, 확산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환성의 개념을 생각해야 하며, 확산성과 순환성의 개념이 더불어져 임파워먼트를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개념짓게 했다.

(4) 시간 : 기다림과 인내

임파워먼트 개념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은 시간 개념이다. 이때 시간은 시간제한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인내심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임파워먼트를 “천천히 기다리는 것”, “급하게 빨리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다그쳐서는 안 되는 것”, “인내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주민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미 앞서나갈 때 … 만나는 사람이 짜증스럽게 느껴지고, 또 변화된 모습이 보여도 그땐 안보이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여지껏 해왔던 것을 금방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독립적인 삶,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임파워먼트 접근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기다림의 여유와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시간 개념은 종결에 대한 사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임파워먼트 접근에서 종결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는데, “종결은 사업에

서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두기가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장기적인 시간 척도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으로, Lee는 임파워먼트 과정이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수년 동안 임파워먼트 지향적인 자조집단을 운영해 온 미국의 경우를 들어, 전문가에 의한 초기 촉진단계에서 자율적인 활동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의 전형적인 시간 척도를 10년에서 12년으로 보았다(Lee, 2000:189).

장기적인 시간 개념은 우리 실천 현장에서 임파워먼트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실적을 강조하고 또 그로 인해 창조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복지실천의 현실이 과연 소수의 대상자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을 허용할 만큼 여유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시간적 제약과 조직의 정체성, 그리고 대외적인 사업평가 분위기 속에서 안내를 갖고 기다려야 하는 장기적인 실천은 현실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절한 자원과 조직의 지원 없이 의욕만으로 이루어지는 임파워먼트는 별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무력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지적도(이혁구, 2000:344) 바로 이 시간 개념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사회복지사 : 관습적 실천에 대한 도전적 태도

임파워먼트 접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사회복지사 자신이다. 임파워먼트는 앞서도 제기되었듯이 자생적인 개념이 아니다.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개념이다. 무력한, 동기가 없는 클라이언트들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출발에는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존재한다. 임파워먼트의 다른 핵심 요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는 결국 사회복지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임파워먼트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회복지사의 실천태도와 전략이 강조되었는데(Gutierrez, DeLois, & GlenMaye, 1995), 본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사 자신이 임파워먼트 실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파워먼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관습적인 개념으로서의 “전문성”은 불평등한 파워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부적절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들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라는 개념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사회복지사들은 임파워먼트의 가능성을 전문성에서 끌어냈는데, “관계를 잘 풀고 어떻게 올바른 피드백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정말 기술이 필요한” 일이며, “어느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지지해 주고, 때로는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그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 자체가 사회적 지위는 다르지만 관계를 평등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 같은 눈높이로 대하는 것과 권위를 갖고 또 그것을 인정받는 것하고는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은 충분히 고수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전문성의 고수가 평등한 관계에 저해요인이 아닌 근거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의 삶에서 전문가는 바로 클라이언트 자신이라는 인식을 하는 데서 찾아질 수 있다.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포기할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문성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클라이언트들 또한 그들과 동등한 전문가로서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또한 임파워먼트 접근에서 사회복지사 자신의 임파워먼트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사회복지사가 “힘이 떨리고, 무능하게 느껴지고, 무기력해지면 그것은 바로 클라이언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데는 공통적으로 동의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이를 나무에 비유해 설명해 주었다. “어떤 나무가 잘 자라서 그 잎이 무성해지면 그게 그늘이 되고 지친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데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와서 쉬지 못하는 것처럼 항상 끊임없이 자신이 임파워되도록 노력하는데 가장 많은 중점을 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이 임파워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인데, 일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고 신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쉴 틈이 없고, 또 사회복지사들의 일이 해도 티가 안나는 일이라는 것, 해도 티가 안나고 안해도 티가 안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자신들의 일에 대해 기관에서 여유를 갖고 배려를 해 주는 것”, “현장에서의 경험과 다른 경험을 하는 것, 그게 학습이 됐든, 세미나가 됐든 전문가로서 만족할 만한 자질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했다.

결국, 조사대상자들에게 있어 임파워먼트의 핵심이자 시작점은 사회복지사 자신이며,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발휘하느냐, 그리고 그러

한 전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어떻게 자기 개발해 나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는 임파워먼트 접근이 단순한 동료 지지집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배개로 하는 “전문적”(전통적인 의미와는 상이한) 실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5. 논의 및 결론

본 조사의 결과,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일하는 현장과 조직은 비록 상이하다 할지라도, 임파워먼트 개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 면에서, 적극성의 정도 면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전제나 관점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이 그들의 접근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진정한 임파워먼트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지만, 현재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접근은 임파워먼트 관점에 근거한 접근이라고 인정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이 기존의 임파워먼트에 관련된 많은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비록 7명이라는 소수의 케이스를 대상으로 한 관계로 이 조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임파워먼트 접근이 시도되고 있고, 또 그들이 함께 모임으로써 사회복지사 자신들이 임파워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임파워먼트 접근의 확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임파워먼트의 토대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인식은 조사대상자들이 특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임파워먼트를 시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깊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데 있다. 단순한 기술적 차원에서의 실천이 아닌 가치적, 이념적 차원이 뒷받침된 임파워먼트 접근이 가능한 이유에는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짙어 있었던 것이다. 아래에서는 본 조사에서 나온 결과 중에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몇 가지 측면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임파워먼트 접근은 결국 관점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었다. 임파워먼트 접근을 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를 보는 관점, 사

회복지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기관을 바라보는 관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났고, 이러한 관점을 실천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임파워먼트 접근의 독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같은 서비스도 관점에 따라 상이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는 사실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사회복지 전문 지식과 기술의 교육과 더불어 가치와 전문적 윤리에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조사대상 사회복지사들은 임파워먼트의 차원을 거시적, 중도적, 미시적 수준으로 구분해 볼 때, 거시적 차원보다는 미시적, 중도적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이 증가되었다고 느껴지는 사적 감정, 심리적 자신감과 집단적 역량강화에 대한 언급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을 뿐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역량행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원인을 사회나 환경적인 차원에서 찾았으나, 실제로 클라이언트들이 권력화되고 정치세력화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데는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오히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즉 사회복지사들은 문제 원인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이나 실천은 비정치적인 양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임파워먼트 개념을 공허한 목소리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실천의 오랜 논쟁거리인 “구조와 기능”(cause & function)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실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일상적인 실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현실과 이상간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임파워먼트 접근을 주장하는 실천가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차이를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임파워먼트 실천에서 “전문성”, “전문적 실천”이 차지하는 위상과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본질적 요소로서 전문성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집착해 왔다. 전문성이 곧 사회복지실천의 존립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사회복지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가치와 목적 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식과 기술 발전을 통한 전문성의 인정은 역설적으로 전문적 기술과 지식에 합치되는 대상층을 선호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사회제도 내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안정적인 위치를 제공받는 장치이기도 했다. Lee는 오늘날 사회복지 전문직은 오히려 그 자체가 전문적 실천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인

으로, 빈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환자 등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사회제도 및 사회복지체계에 순종하고, 의존하는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Lee, 2001:43). 그러나 조사 결과 임파워먼트 실천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전문성이 대한 인식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았다. 임파워먼트 접근에서의 전문성은 기관의 실천에 도전적이며, 규격화된 실천이 아닌 대상과 상황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창의적 실천을 의미했으며, 특히 우월이나 권한, 권력, 대상자와의 거리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그러한 우월·종속의 비대등한 관계를 평등한 동반자의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러한 의미로서 “전문성”的 개념을 받아들이더라도, 전통적인 전문성이란 용어 자체를 계속 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덧입힐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회복지실천가가 임파워먼트 접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정체이나 부서의 정체성에 얹매이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를 무한정 투자할 수 있는 창조성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무제한적 노력의 투자가 비록 초기에는 작은 성과에 불과해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임파워먼트 자체의 속성상 그 전파력으로 인해 더 많은 대상층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접근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현재 실천가들과 기관들은 임파워먼트에 에너지와 그 자신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철희·윤민화. 2000.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1호.
- 김인숙. 2001. "사회복지실천의 탈계층화: 정체성의 확립인가? 정체성의 위기인가?," *《한국 사회변화와 사회복지의 미래》*, 바판사회복지학회(가칭) 창립학술대회 자료집.
- 박미은. 1996. "학대받는 아내의 사회심리적 대응과정과 사회사업적 임파워먼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시종. 2001. "사회복지실천에서 권리주체화 이론의 방법론적 통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7호.
- 서진환 외(역). 2001. *《현대 사회복지실천이론》*, 나남출판.
- 신영화. 1999. "학대받는 아내의 능력고취를 위한 집단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옥경·김미옥. 1999.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권한부여 모델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 통권 43호.
- 오헤경. 1999. "사회사업실천에서 세력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전망》*, 흥의제.
- 유태균. 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나남출판.
- 이윤화·권중돈. 1999. "지역복지실천에서의 주민 역량강화 방안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vol. 37(1).
- 이혁구. 2000. "권력장치로서의 사회복지: 푸코의 권리이론에 입각한 '권한부여' 비판,"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3호.
- 장인협·우국희. 2001. *《케어·케이스 매니지먼트》*, 서울대학교출판부.
- 황성철. 2001. "임파워먼트 모델과 사회복지 조직 관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Beck, B. M. 1983. "Empowerment: A Future Goal for Social Work," Paper presented at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 Conference.
- Braye, S. & Preston-Shoot, M. 1995. *Empowering Practice in Social Car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Cohen, M. B. 1998. "Perceptions of Power in Client-Worker Relationships," *Families in Societies*, vol. 79(4).
- Dunst, C. J., Trivette, C. M., & Deal, A. G. (eds.). 1994. *Supporting & Strengthening Families: Methods, Strategies and Practices*, Cambridge, Brookline Books, Inc.

- Germain, C. B., & Gitterman, A. 1980. *The Life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utierrez, L. M., DeLois, K. A., & GlanMaye, L. 1995. "Understanding Empowerment Practice : Building on Practitioners-Based Knowledge," *Families in Society*, vol. 76(8).
- Lee, J. A. B. 2001. *The Empowerment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 Building the Beloved Commun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upton, C. & Sheppard, C. 1999. "Lost Lessons? The Experience of a Time-Limited Home School Support Project," *Children and Society*, vol. 13(1).
- Patton,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 Perkins, D. D & Zimmerman, M. A. 1995. "Empower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3(5).
- Rondeau, G. 2000. "Empowerment and Social Practice, Or the Issue of Power in Social Work," *Social Work and Globalization*, Ontario, Canadi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Rose, S. M. 2000. "Reflections on Empowerment-Based Practice," *Social Work*, vol. 45(5).
- Sachs, J. & Newdom, F. 1999. *Clinical Work and Social Action : An Integrative Approach*, New York, Haworth Press.
- Saleebey, D. 1996. "The Strength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 Extension and Cautions," *Social Work*, vol. 41(3).
- Zimmerman, M. A.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 Issues and Illustra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3(5).

A Qualitative Study on the Meaning of Empowerment Perceived by Social Workers

Is the Empowerment Approach Applicable in Korea?

Kim, In-Sook

(Professo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Woo, Kug-Hee

(Assistant Professor, The Seoul Christian University)

Recently, the concept of empowerment has become popular within social work practice. Despite of this trends, we have little empirical knowledge about what empowerment practice is and how it is applicable to practice settings in Korea. This study explored how social workers perceived and experienced the concept of empowerment. We used qualitative method to solve this questions. Individual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7 social workers serving in diverse settings.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Participants had common perceptions of empowerment concept despite of the different settings. They perceived power as confidence, independence, self-control. The client/worker relationships were open, nonhierarchical egalitarian and characterized by mutuality and reciprocity. They emphasized the nature of empowerment as circular and diffusive process. Also, they orientated long term practice related to impatience of social workers. Finally, those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challenged and reinterpreted the existing traditional "professionalism". We concluded that empowerment practice might demand infinite energies, social worker's creativity, trust of clients, and that empowerment practice would be a new approach in social work practice which influence on much more population because of its diffuseness.

[접수일 2001.12.4 계재확정일 2002.3.1]